

# 딸아이 작명사주·첫사랑의 편지... 소중했던 추억들 여기에

## 월간 **키농샤**

### 11월호



아날로그적 삶 추구하는 사람들  
문화를 살찌운 세계 도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금화(여·40)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두 딸이다.  
“아이를 낳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하며 남편이 유명하다는 작명소를 찾고, 찾아가 고심 끝에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 덕분인지 아이들은 지금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고, 저와 제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작은 종이로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네요. 큰딸(함수민)과 작은딸(함수연)의 작명 사주를 전시합니다.”

광주 폴리Ⅱ ‘기억의 상자’ 소형 박스가 광주·전남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으로 채워지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고석홍·김미희씨의 작품인 ‘기억의 상자’는 오는 11월 중순 완공되는 폴리Ⅱ 작품 중 하나로 소형 박스 448개로 구성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기억의 상자’ 운영파트너인 광주YMCA는 이 중 소형 박스 148개를 시민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모를 통해 사연과 전시품들을 접수받았다.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은 모두 80여점. 학생, 주부, 직장인 등은 5학년 반장 임명장부터 축구화, 일기장, 군번줄, 스타킹, 여권 등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과 빼곡한 사연들로 기억의 상자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정자씨는 시집보낸 딸들이 아직도 그림다. ‘잘 살고 있니?’라는 전시제목으로 밀짚모자와 함께 제출한 글에서 항상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진다. 조씨는 ‘남편 출근은 잘 시켰는지, 아이들은 잘 키우고 있는지~ 매일 전화통화를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라고 적으며 혜숙, 혜승, 재은, 진남씨의 안부를 물었다. 밀짚모자는 그가 딸들에게 보내는 참기름을 만들 때 썼던 것이다.

10년에 걸친 첫사랑과의 이별,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들로 상자를 채운 이도 있다. 김묘식(여·23)씨는

광주 폴리Ⅱ ‘기억의 상자’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설치  
사연·전시품 공모 448개 소형박스 중 148개 시민에 분양

‘10년, 첫사랑 그리고 안녕’이라는 전시로 지난 10년, 3175일 동안 함께했던 첫사랑을 회상했다. 함께 찍은 사진, 주고 받은 편지, 선물 등으로 처음 만난 초등학교 시절,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렸던 시간 등을 다시 추억했다.

청소년기에 무용수를 꿈꿨던 조혜림씨는 무용 슈즈와 치마, 부채로 작은 박스를 채웠다. 전시된 물품들은 조씨가 고전무용수를 꿈꾸며 몇 년간 입시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다. 그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답았다.

이 밖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의미 있는 기억들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소품들을 전시한 이도 있고, 유치원 시절 사진과 군대에서 탱크를 몰았던 기억 그리고 현재 여자 친구와 함께 맛집을 탐방하고 그 모습들을 액자들로 전시한 남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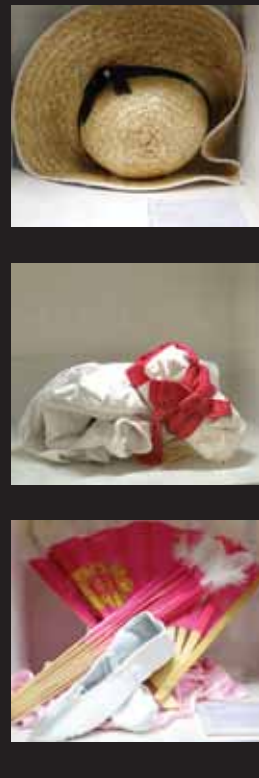
광주YMCA 관계자는 “나머지 상자들은 광주지역 단체들과 유명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있지만 무용 또한 내 삶을 단단하게 해준 재석이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장성에 사는 이관준(70)씨는 ‘빼빼로 나리꽃’ 시화 사진을 상자에 담았다. 정시가 되면 시간을 알려주는 뼈구기 시계를 생각하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함께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시민들의 사물함과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광주 폴리Ⅱ ‘기억의 상자’(고석홍·김미희 작,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가 딸아이 작명사주, 첫사랑과의 기억이 담긴 소품 등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들로 채워지고 있다.



## “기분좋은 극장에서 기분좋게 웃어보자”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 두 편이 무대에 오른다. 두 작품 모두 부담없이 웃으며 관람할 수 있는 유쾌한 공연이다.

상무지구 우체국보통 16층 기분좋은 극장에서는 오

◀연극 ‘수상한 흥신소’ 11월24일까지

◀뮤지컬 ‘프리즌’ 12월1일까지

는 11월 24일까지 연극 ‘수상한 흥신소’를 공연한다. 자타공인 백수 고시생 오상우에게는 죽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엘리트 출신 귀신과 만화가가 꿈이었던 귀신을 만나게 된 그는 기발한 사업을 시작한다. 정체불명 흥신소를 차리고 갑작스레 죽은 영혼들이 해결

하지 못한 중요한 일들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5명의 배우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선보이는 20여 개 캐릭터가 보는 즐거움을 준다.

총장로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프리즌’(12월1일까지)은 인기 개그맨 컬투가 기획한 작품이다. 콘서트와 퍼포먼스, 마술, 개그 등이 결합된 작품으로 다양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작품은 가수가 되고 싶은 탈옥범들의 이야기다. 가수의 꿈을 안고 혹독한 준비를 해왔지만 사기를 당한 주인공들은 은행을 털다 교도소에 수감된다. 감옥 방장에게 매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본의 아니게 공연 트레이닝을 하게 된 이들은 탈옥에 성공한 후 밴드 활동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두 작품 모두 전석 3만원(다양한 할인혜택). 문의 1600-6689.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하지 못한 중요한 일들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5명의 배우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선보이는 20여 개 캐릭터가 보는 즐거움을 준다.

총장로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프리즌’(12월1일까지)은 인기 개그맨 컬투가 기획한 작품이다. 콘서트와 퍼포먼스, 마술, 개그 등이 결합된 작품으로 다양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작품은 가수가 되고 싶은 탈옥범들의 이야기다. 가수의 꿈을 안고 혹독한 준비를 해왔지만 사기를 당한 주인공들은 은행을 털다 교도소에 수감된다. 감옥 방장에게 매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본의 아니게 공연 트레이닝을 하게 된 이들은 탈옥에 성공한 후 밴드 활동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두 작품 모두 전석 3만원(다양한 할인혜택). 문의 1600-6689.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